

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2월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논의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기사입력 2025.02.26 16:52:56 최종수정 2025.02.26 16:52:56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6일 지사 회의실에서 '2월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사장을 비롯해 지사 직원 및 수급인 대표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해빙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지반 침하,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건설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승민 지사장은 "안전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무사고·무재해 실현을 위해 안전보호구 착용, 현장 정리정돈, TBM(Tool Box Meeting) 철저히 이행 등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매월 정기적인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도급 및 수급사가 함께 협력하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